

목포 ‘복지시책 강화’ 삶의 질 높인다

생계급여 인상·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보편적 복지 집중

목포시가 새해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시책으로 시민 삶 개선에 나선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되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5만6천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

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도 각각 폐

지된다.

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여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2종(입원)이 10%에서 5%로, 6-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은 2종(입원)이 10%에서 3%로 인하된다.

긴급복지는 주 소독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주소득자와 부소독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단전 등으로 사유가 확대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4인 기준 338만원 이하, 재산 8천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목포시 사회복지과(270-33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숙 목포시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펼쳐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



완도 해양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박차

기본계획 실행 방안 중점 논의

완도군은 최근 완도군청과 원네스 리조트에서 전남개발공사, ㈜웰컴I&D와 함께 해양헬스케어사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12월26일 전남개발공사와 완도 해양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후속 조치로 개최됐으며, 전남개발공사 윤주식 경영본부장, 임주선 신성장 사업부장, ㈜웰컴I&D 기업부설연구소 최미경 소장,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8월 마련한 완

도 해양헬스케어산업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토론했다. 스포츠 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 사례 소개, 해양헬스케어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기업지원제도,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또 해양치유시설이 집중되는 해양헬스케어 거점단지와 연계해 완도 수목원의 산림자원과 도서(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 방향을 추가 설정해 추진하는 방법도 제시 됐으며, 2차 전략회의를 갖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안군은 이용객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착장,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신안군은 오는 3월까지 군비 5천200만원을 투입해 지도 송도공중화장실 등 10개 읍면 공중화장실 17개소에 대해 노후 시설 도색, 방충망·변기 교체, 손 건조기 등 시설물 보수와 수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8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시설을 파악,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신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위생감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이전에 사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지난해에도 6개 읍면 공중화장실 10개소의 개·보수를 실시했고, 증도대교, 서소우이도, 송공산 등 3개소의 공중 화장실 신축을 완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보수는 물론, 위생용품 수거함, 청소표지판 등 편의용품들을 대폭 확충하고, 이용객 증가 등 신규수요 충족을 위해 지도읍 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호기 기자



강진원 군수가 강진군 칠량면에 소재한 땅심화훼영농농민을 현장 방문하고 있는 모습. 청자골 장미는 지속된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국내 화훼산업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품질로 틈새시장을 공략,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청자골 장미’ 고품질화 인기몰이

벼농사 대비 30배 수익 창출

강진군 칠량면에 있는 땅심화훼영농법인이 재배, 판매하고 있는 ‘청자골 장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자골 장미는 지속된 경기불황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국내 화훼산업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품질로 틈새시장을 공략,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장미의 최대 집산지인 경기 고양시와 비교했을 때 국토 남단에 있는

강진의 1월 평균 기온은 6도 정도 높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의 이점을 십분 활용, 난방비를 절감시켜 생산비를 아낀다. 강진의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을 통해 꽃의 색과 향기 등 품질을 최고의 상태로 균등하게 유지해 전국의 화훼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자골 장미가 화훼 농가의 효자상품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도 있었다. 고온성작물로 난방비 부담 때문에 생산 작물을 교체하기도 하고 계속된

이어짓기로 품질과 생산성이 저하돼 농가 소득이 감소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장미산업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국비를 확보해 20억원 가량 투자했다.

이어짓기의 피해 해소를 위해 양액재배시설로 재배법을 과감히 바꾸었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보온커튼 지원, 인공햇빛인 보광등 설치와 광합성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액화탄산가스 공급시설 지원 등 첨단시설과 장비를 지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

무안군은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안군은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3월 ‘무안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다.

무안군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1억 8천9백만원의 본예산에 편성 총 27가구를 대상으로 구조보강, 수장공사, 난방공사, 위생설비 등의 복지사각지대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무안=전영태 기자

신양파크 호텔

호텔식 정통 중화요리

豫園 (예원)

신양파크 호텔 6층 예원 중식당
회갑연, 돌잔치, 각종행사 연회식, 음향대여
예약문의 062-226-3888~9